



현장 포커스

업계동향

Cargill (주)카길에그리퓨리나

News Release

일 시 : 2015년 9월 15일

연락처 : (주)카길에그리퓨리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김남주 031-710-6009 nkim1@cargill.com

❖ 2015 KISTOCK 양돈 경영인 세미나 성황리 개최 3D 혁신과 한돈산업의 새로운 기회 주제로

2015년 9월 10일 - (주)카길에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는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5년 한국 국제축산박람회에서 ‘3D 혁신과 한돈산업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카길에그리퓨리나 양돈 경영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 장에 많은 고객 및 업계 관계자들을 참석하여 한돈 산업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카길에그리퓨리나 양돈 마케팅 이일석 이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한돈협회가 강조하는 ICT 융복합 시스템의 선두 주자이자 카길에그리퓨리나의 고객 농장인 풍일농장(충남 천안 성환 소재) 정창용 대표의 짧은 강의 영상과 함께 인사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지난 해 양돈 생산액이 역대 최고치인 6조 6천억 원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축산 분야의 최고 품목으로 자리잡은 한돈 산업의 위상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자축을 하였다. 한편 “한돈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고령화와 환경 규제에 의한 도전뿐만 아니라 FMD와 PED 등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노산돈과 후보돈의 급증에 따른 번식 성적 하락이 예견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비록 번식돈 사료 생산량이 최근 전년 대비 3~4% 가량 증가됐지만, 성적 하락으로 인하여 향후 도축두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돈의 소비 구조가 안정화 되고 돈가는 5,000원 시대에 진입한 이래 메르스 사태나 수입육 증가 등의 어지간한 외부 변수에도 크게 위축되지 않을 만큼 멧집이 강해진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농가들도 일시적인 돈가 하락에 흔들리기 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3D 혁신으로 한돈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통해 첫째, 숫자에 강한 경영과 ICT 융복합 스마트 양돈 - Digital(디지털) 경영, 둘째, 유전자 개량과 통일뿐만 아니라 유전력을

극대화하는 사양관리 - DNA(유전자) 경영, 셋째, 생각을 더 크고 긍정적으로 디자인하고 농장을 아름답게 가꾸며 지역 사회와 나눔과 기여를 통해 존경 받은 한돈 산업의 이미지 창조 - Design(디자인) 경영이라는 3가지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며 한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만들 것을 주문하고 앞으로 10년 후 한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여 참석한 농가들에게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카길에그리퓨리나 양돈 마케팅 박종익 부장은 글로벌 카길의 검증된 사양 관리 시스템인 다산성 고능력 모돈을 위한 카길 레스큐 시스템과 전용 대용유 제품, 그리고 다양한 운영 및 성공 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

카길 레스큐 시스템은 산자수는 높은 반면 포유 중 폐사율이 증가되거나 이유체중이 감소하는 문제와 함께 모돈의 연산성 저하, 출하일령 증가, 사료 효율 저하로 이어지는 농장에서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며 현재 유럽에서는 성적이 매우 우수한 5,000여 곳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28 농가에서 적용 및 검증이 된 것이다. 이날 레스큐 시스템을 통해 지난 여름철에도 복당 이유두수 13두 이상을 달성한 농장(경기 이천)의 우수 사례도 소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카길에그리퓨리나는 이번 양돈 경영인 세미나에서 한돈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읽어내고 앞선 기술과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 1. 2015 양돈 경영인 세미나 현장



사진 2. 부스에 소개되어 관심을 끌었던 카길 레스큐덱 시스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2015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장 이병규 (사)대한한돈협회 회장, 이하 KISTOCK 2015)가 9월 9일(수)~12일(토)까지 대구 EXCO에서 ‘친환경 안전 축산, 세계로! 미래로’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KISTOCK 2015는 10개국에서 263개 축산 관련 업체가 890개 부스로 참가하였고 관람객 9만 4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 9월 9일에 열린 개막식에서 이병규 추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역대 박람회 중 가장 많은 업체가 참가해 최대 부스를 마련했고 ‘친환경 안전 축산, 세계로! 미래로’을 주제로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축산 신기술과 신기종이 전시됐다”며 “박람회가 축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와 신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축산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축산업계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KISTOCK 2015는 농림축산식품부와 6개 생산자단체(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가 주관했다.

대한민국 유일의 축산 전문 박람회로 대한민국 농업을 이끄는 국내 축산업의 기술 발전과 설비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축산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등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상호 기술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시업체의 해외투자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전시관은 대구 EXCO의 1층 실내 전시장인 제 1, 2, 3홀과 옥외전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전시면적은 21,915 m²에 총 250개 업체, 890여 개 부스가 구성 전시되어 축산관련 신제품과 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층 실내 전시장에는 국내 축산 ICT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융·복합 스마트팜 특별관, 기자재, 사료, 동물약품, 종축, 해외 기업체 및 축산관련 기관 단체 등 다양한 홍보관 등이, 옥외 전시장에는 각종 소독장비와 차량 등 중장비 등이 전시되었다. 9월 11일 열린 폐막식에서는 우수전치업체 대상에 카길에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가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행사가간동안 구제역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도널드 킹 소장 초청 구제역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해 FTA 개방시대 국내 축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19건의 각종 세미나가 축종별로 이어져 국내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축산 인식 개선 캠페인>, <도심 속 승마체험>, <축산사랑 나눔 캠페인>, <축산물 시식회> 등을 열어 소비자와 함께 하는 박람회로 꾸며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양축농가를 위한 안마 및 지압 서비스 존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 존 등 다양한 참여행사와 이벤트가 펼쳐졌다.



<사진출처: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포토뉴스>

정리: 박봉균 (한돈연구회 회장)